제 10차 ASEAN Food Conference를 다녀와서

신 동 화
Shin, Dong Hwa

전북대학교 응용생물공학부
Dept. of Food sci. & Tech Chonbuk National University

제 10차 ASEAN Food Conference가 Food for ‘Mankind-Contribu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라는 주제를 걸고 말레이시아 Sheraton Subang Hotel and Towers에서 2007. 08.21-23까지 3일간에 걸쳐서 열렸다. ASEAN Food Conference는 한국, 일본, 중국 등 극동아시아 국가를 제외한 브르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일랜드, 베트남 등 10개국이 참여하는 식품관련 국제학술회의로서 매 2년마다 회원 국가를 돌아가면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총 40여 개 나라에서 약900명이 참가한 중규모의 식품관련 국제학술회의였다. 첫날에는 개최국인 말레이시아 과학기술부 차관이 참석한 개회식을 갖고 바로 plenary lecture 2건이 끝난 후 4개의 방으로 나눠 학술발표가 진행되었다.

첫날의 plenary lecture는 Food for Mankind(Dr. Estrella Alabastro, Philippines)와 Strategizing ASEAN Food Industries(Dr. Fatimah Mohamed Arshad, UPM)에 대한 강연이 50분씩 진행되어 전체적인 식품과 인류, 그리고, ASEAN 식품산업에 대한 총론적 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Enhancing Food Safety Through Risk Assessment에 대한 주제와 Food Service & Entrepreneurship, Innovative Food Biotechnology for the Future, Food Processing & Engineering(1) 등으로 나눠 구두 발표가 진행되었다.

둘째 날에는 Current Global Issues in Food Standards 등 3건의 plenary lecture후 Food Safety (1), Standards and Regulation, Halal Food, Fats and Oils, Food Safety(2), Nutrition and Wellness (2), Food Processing and Engineering(2), Functional Food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셋째 날은 오전 만 진행되었는데 Food Service Industry 등 2주제의 plenary lecture후 Nutrition and Wellness (2), Food Analysis, Food Safety(3), Post Harvest and Processing 주제로 4개의 방에서 각각 7-8개의 소

*Corresponding Author : Shin, Dong Hwa
Dept. of Food Sci&Tech 664-14, Dukjin-Dong Jeonju, Jeonbuk, 565-756, Korea
Tel: +82 -63-270-2570
Fax: +82 -63-270-2572
E -mail: dhshin@chonbuk.ac.kr

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Plenary lecture나 동시에 진행된 발표주제에서 보듯이 세계 식량 사정, 특히 식량부족에 따른 기아, 영양결핍 등 기본적인 욕구충족의 필요성이 강조됨과 동시에 여러 나라의 주제 발표자들이 식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IFT나 선진국에서 발표되는 주제들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점은 기능성 식품이나 생물공학에 대한 발표주제가 비교적 적었고 식품가공방법의 제시, 제품개발, 그리고 국가별 식품관련 규격 및 법규, 그리고 FAO의 규격 등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식중독 미생물과 화학물질, 그리고 mycotoxin 등의 주제는 상당히 폭 넓게 다루어 졌으며 각국의 규격 기준은 우리의 실정과 비교해 볼 때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동남아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활발히 진행되는 식물로부터 기능성 천연물의 분리 및 이용에 대해서도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무슬림 식품인 Halal Food가 한 session으로 다루어져 Halal Food의 과학, 교역, 학문적 접근, 정책 등에 대하여 논의가 되었다. 종교에 바탕을 둔 식품을 이해하는 기회였다. Poster는 약 400여편 발표되었고 주제발표와 비슷하게 식품가공 및 공학분야에서 약 120편, 기능성식품분야 55편, 생물공학 45편, 식품분석 51편 그리고 식품위생분야가 36편이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개 대학,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서 주제발표와 포스터 발표를 하였으며 총 참여인원은 15명 내외로 추정되었다. 이전의 참가자수에 비하여 극히 적은 연구자들이 참여하였고 poster나 주제발표에서도 많지 않은 경우였다.

이번 학술회의에 참여하여 느낀 점은 아세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비교적 규모가 큰 식품관련 국제회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술과 학술 결과의 교류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선진국에서 개최되는 학술회의에 비하여 첨단 과학기술 발표의 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기술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우리가 같이 공유할 많은 정보가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또한 이들 국가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농업생산 및 가공이 주산업인 나라이며 우리나라도 상당량의 원료와 가공품을 수입하고 있어 이들 국가와 깊은 유대관계를 맺는 것은 국가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번 국제회의에 일본과 중국은 상당한 재정지원을 하여 proceeding에 표기하였고 조직위원장의 인사에서도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있었다.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의 재정지원을 한다면 상호 관계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점은 물론 우리나라가 ASEAN의 정식회원국은 아니지만 Plenary lecturer에 한사람도 없었으며 겨우 식품

의약품안전청에서 1건의 oral presentation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 학술회의가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10차까지 진행되면서 관련 학회에는 상당히 홍보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번 학술회의에는 너무나 미미한 관심을 보였다. 앞으로 2년 후 브르나이에서 열리는 이 전문 식품분야 학술회의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

제 10차 ASEAN Food Conference에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IUFOST의 전회장인 Dr. Alan Mortimer, 전 IFT 회장인 Dr. Lund, 현 IUFOST 회장인 Dr. Lineback 등이 참여하여 Plenary lecture, 좌장 등을 맡아 이 학술회의의 격을 높여주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발표 내용은 학술적 견지와 실용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많았다.

특히 각국의 규격, 기준과 관리방법, WHO/FAO의 식품규격 등은 우리나라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함으로서 좋은 정보수집의 장이 될 것이나 관련 인사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끝으로 국제학술회의나 국내에서 거행되는 학술회의에 참가한 후 느끼는 씁쓸한 기억을 지울 수가 없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국제학술회의에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수백명 씩 참여하고 있는데, 등록과 개회식이 끝나고 나면 상당수가 자취를 감추는 것이다. 참가하는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고 학술회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학술 활동을 통하여 본인의 학문적 발전은 물론이요 자기 연구 결과를 홍보하여 국가 위상 제고에도 기여 할 뿐만 아니라 선진 학자와의 교류 기회로 활용하라는 주문이며, 본인으로 봐서도 재정 지원을 한 국가에 대한 책임 또한 느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